

# 부처님은 피부색 차별하지 않았다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이주민 정책 토론회

“생명 있는 모든 것,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나, 길고 커다란 것이거나 중간이거나 또는 짧고 작은 것이거나,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숨 걸고 구하듯이 모든 존재들에 한량없는 마음을 내야 한다.” <자비경>

부처님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 피부색이나 계급 등에 따른 차별적 관행을 깨고 평등을 실천했다. 하지만 2000만 불자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불교적 접근과 활동은 미비하다. 한국에서 활동한 이주 노동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인은 싫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왜 이주민들은 자비심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는 것일까?

이주민 120만 사회를 맞아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6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 주최,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회장 지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혜경 스님은 개회사에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이 때 국가정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대회사에서 “현장 활동가는 물론 많은 이들이 이주민의 인권 등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공통된 인식의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 #이주민 인권과 '자비회사 사무량심'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이주민의 인권과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다문화 가정에 속하는 이주민도 기본권에 의한 보장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문화 이주자가 법적으로 국민의 지위를 누리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를 개선해야 하고, 인권적인 면에서는 사회적인 차별의식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 온 우리 사회에 다른 문화 집단과의 문화, 사고방식, 습성, 풍속 차이에서 대한 차별 의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다문화 이주민을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과 돌봄의 대상, 제한적이거나 배제적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이 대표는 “이주민들은 문화적인 타자,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중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인권 향유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대표는 우리 사회의 인권이 서구에서 정의한 인권이라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불교적



비영리민간단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6월 12일 구미역 광장에서 경북 거주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족, 시민들과 함께 2010월드컵 한국전 응원전을 열어 인식 개선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 보편적 인간존중 바탕한 다문화주의 모색해야 불교에 걸맞는 이주민 정책 개발 필요성에 공감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서구의 인권관이 인권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의 법적·제도적 실현이지만 불교의 연기(緣起)는 합법적 인권으로 재구성 가능하다”며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주상보시의 힘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교적 실천은 중생(인권피해자 또는 사회적 소수자)이든, 보살(사회적 의무자)이든 모두 자비회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에 있다”며 “인권실현을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자 보살행이다. 사회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뤄진 인권실천 공동체가 사회적 차별 관행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는 토론회에서 “자비회사의 사무량심은 구체적으로 육바라밀의 실현이 곧 인권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통하는 바를 남에게도 행하라’ ‘내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도 행하라’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자통지법(自通之法)’의 가르침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고 덧붙였다.

### #다문화 시대 불교계의 역할

이혜숙 불교아카데미 학술이사는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혜숙 이사는 “국제결혼 급증에 따른 다문화사회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심주의 문화 등을 보편적 가치로 두는 단일 중심주의의 다문화주의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다중성상에 입각한 다문화주의 모색”을 제안했다.

이혜숙 이사는 “이주민(외국인)이 주류사회에 동화·적응·통합되는 것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거주민(한국인)이 이주민들에게 적응하는 것에 대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교계가 △사찰, 불자들을 중심으로 조달할 수 있는 ‘내부자원’과 정부의 정책과 제도 등에 비롯된 ‘공적 자원’을 파악하고 배치할 것 △사찰은 지역사회 육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정책 홍보와 서비스 알선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어 이혜숙 이사는 “사찰과 종단차원에서는 포교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실무자 전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했다.

실무자들을 위한 사업 아이템도 소개했다. 그는 결혼이주민을 위한 가장 좋은 사업 아이템은 통역, 언어교육, 양육 등을 도와주는 멘토, 이주민 간의 결연사업, 불교계 단체와 외부 단체와의 교섭을 제안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 불교계 이주민 지원 현황

100명 중 8명이 외국인인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전체 결혼의 40% 이상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다. 이주민 단체 등 현장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대책은 막연한 당위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이라고 말한다. 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결혼이주자 중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불교 국가나 불교 정서가 강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주민들에게 불교를 통한 사회적 안정감이나 정착의 기회는 적었다. 불교계의 관심이 미약한 만큼 사업 전개 시점도 타종교에 비해 10여 년이나 늦게 출발했다. 그만큼 외형적으로도 들어난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6개소

중 불교계는 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개 소 중 불교계 4개, 400여 민간단체 중 불교계는 40~50여 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교계의 역할은 주목된다. 이주민 지원사업이 교회 중심의 시민단체나 관 주도 지원으로 일방적인 교육이나 배려해주기 사업으로 진행돼 왔다. 이주민 지원사업에서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거부감 없는 환경 제공에는 불교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이 커다란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찰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행성이 가장 관심이 끌리고 있다. 재한 외국인 스님을 중심으로 열린 공간 제공 자구법회 개최는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정서적 의지처 이상의 역할이 기대된다.

### ● 불교계 이주민 지원활동 사례

이날 토론회에는 불교계에서 이주민 사업을 비교적 활발히 펼치고 있는 마하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 전등사, 화계사, 캄보디아·네팔·몽골 법당의 현재 모습 소개,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오산행복한이주민센터, 광주 아시아방송공동체, 반갑다연우회, 부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의 활동을 소개했다.

사찰에서 진행되는 이주민 사업은 단기성 행사, 한국불교 문화 소개 및 체험, 문화 축제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어 교육, 의료지원서비스, 컴퓨터교육, 일자리 제공, 한국 음식 수업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곳도 있다. 캄보디아·네팔·몽골 법당에는 조계종단, 사찰 등에서 일부분의 재정을 지원하는 형식이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이주민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이금현 자비회실 사무국장은 “이주민들은 건강, 임금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스스로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실제 몇 개의 사찰에서는 각 사찰의 성가성 사업으로만 풀어나가고 있다. 불교계의 연대를 통한 사업을 빨리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몽골 간단사원 한국지부 서울포교당 대표 바트보양 스님은 “이주민이나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몽골 공동단체를 만드는 데 한국 불교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 가톨릭 활동 사례

김선임(공과대 박사과정 수료)씨는 주제발표 ‘해화동 공동체’에서 가톨릭계가 필리핀 이주 노동자 공동체인 ‘해화동 공동체’에서 보여준 이주민 돕기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계의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해화동 공동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활동을 이끌고 있는 것은 그들의 종교인 가톨릭이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해화동 공동체’는 1992년 자양동 성당 미사에 참석한 필리핀인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재한 필리핀인들은 가톨릭 서울대학교와 세계적 네트워크(교당투표 외방선교회, 메리놀 외방선교회, 필리핀 외방선교회)를 갖춘 가톨릭계의 체계적 지

원으로 자신들의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해화동 공동체’를 통해 가톨릭계는 성당의 예배 공간은 물론, 사무실 및 쉼터 공간까지 확보해줬다.

‘해화동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해화동 로터리 일대에는 해화동 성당을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 3000여 필리핀인들이 모여든다. 필리핀이주노동자 전담병원인 ‘라피올 클리닉’은 서울대병원 가톨릭의사회 소속 의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일요일에도 송금서비스를 해주는 은행, 지역조직, 등의 공간까지 마련됐다. 가톨릭계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김선임씨는 “불교계 동남아 이주민이 많은 한국에서 종교를 통한 이주민 정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불교계의 연대를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복 지음 (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거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뻐뻐,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젓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근육** 배살과 전정, 복부비만을 이주 쉽게 해결한다. 물속,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패장운동법!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을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 빛 살림 정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